

기업 살리러 왔나, 삼키러 왔나

대한조선 워크아웃 실사단 “경영권 포기 도장 찍으라” 절차 무시 무리한 요구 말짱... 전남도 “이해할 수 없다”

워크아웃 실사를 받고 있는 대한조선 측이 채권은행 실사단의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요구에 반발해 실사단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실사단은 대한조선측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사실상 경영권 포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영관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강요하고 있어 채권단이 기업을 살리러 하기 보다는 ‘경영권 뺏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있다.

5일 대한조선과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대한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를 위해 실사단이 지난 2일 오후 대한조선 조선소가 있는 해남군 화면면 구림리 현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실사에 앞서 실사단과 대한조선 간에 경영관리계약서 작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지난 4일 실사단이 현장에서 철수, 실사가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실사단 제시한 경영관리계약서에는 채권단이 임명하는 경영관리단장이 ▲경영 및 재무관리 ▲자금관리 ▲인사관리·인력구조 개편 등 구조조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

도록 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도록 정하고 있다.

대한조선 측은 “이는 경영권·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변화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계약서 날인을 미루는 한편, 재무·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단과 대한조선측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계약조건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이 경영관리단장에 현 대한조선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선임하려는 데 대해 대한조선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정상적인 워크아웃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조선은 올 초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김씨를 해임키로 하고 이사회에 김씨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회부한 상태인데, 인사불만을 품은 김씨를 경영관리단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실사단 단장격인 S씨는 지난 2일 목포에 도착한 직후 목포역까지 마중을 나온 김씨와 4시간 동안 잠적,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대한조선 박춘규 전무는 “이사회 결의 없이 경영관리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은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기업개선을 위

한 노력도 없이 벌써 채권단이 대주주 행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조선의 또 다른 임원은 “실사

단의 행보를 보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사인지, 회사를 다른 곳에 넘겨 버리려는 실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며 불만을 털어냈다.

전남도 관계자도 “보통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실사는 차분히 2~3주 정도 이뤄진 뒤 경영관리단 파견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크아웃은 말 그대로 기업개선을 위한 작업인데 산업은행

측의 대한조선에 대한 이 같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이해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한조선 측이 워크아웃과 경영권의 관계에 대해 일부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며 “대한조선으로부터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출받아 원활한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불황이 물렸거라!

휘황청 밝은 달밤 정월 대보름(9일) 소원을 빈다. '액운'은 막고 '행운'은 가득하라고. 또 우리 경제도 들불처럼 활황 타오르라고. 대보름을 나흘 앞둔 5일 저녁 함평군 월이면 달맞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한해의 액운을 쫓는 쥐불놀이 하고 있다. /함평=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J프로젝트 부지 3분의 1만 우선 심의를”

전남도, 중도위에 요청

전남도는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 개발계획의 공간적 심의 범위를 확정해 달라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회(이하 중도위)의 요청(본보 5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전체 6개 사업지구 중 기존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낸 2개 지구만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박은호 전남도 기업도시과장은 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삼호·구성지구 2곳에 대해서만 중도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나머지 4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중도위의 요청은 심의대상을 삼호·구성 등 2개 지구로 제한할 것이지, 나머지 4개 지구의 개발계획까지 감안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심의를 신청한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가 이뤄진 만큼 중도위 심의대상

범위를 이들 2개 지구로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만나 중도위 심의대상 범위를 2개 지구로 확정된 뒤, 중도위 지적사항인 2개 지구 개발계획안의 녹지완충지와 교통계획 등을 보완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중도위에 삼호·구성지구 개발계획 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연아, 네가 있어 행복해

밴쿠버 4대륙 피겨 쇼트 세계新 1위

‘피겨퀸’ 김연아(19·군포 수리고)가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수를 경신하면서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 첫 우승을 향해 한걸음 다가갔다. <관련기사 18면>

김연아는 5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 실내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 42.20점에 예술점수 30.04점을 얻어 합계 72.24점으로 가법계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김연아는 자신이 지난 2007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웠던 쇼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71.95점)을 0.29점이나 끌어올리는 성과를 일궈냈다. 김연아에 이어 개최국 캐나다의 조애니 로셰트(66.90점)와 신시아 파뉴프(60.98점)가 나란히 2,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김연아의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는 점프와



스핀 난자로 57.86점에 그쳐 6위로 내려앉았다. 한편 김연아는 7일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통해 자신의 첫 4대륙 대회 금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사상 첫 ‘한국 국적’ 누구나 투표권

재외국민투표법 의결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 대통령선

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주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주신고를 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62-222-8111
1021530-9496